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Working Experience of Pastor's Wives

조현미 (Hyun-Mi Joe)*

최은정 (Eun-Joung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은주 (Eun-Ju Joe)***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pastors' wives' work experienc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7 pastors' wives who have worked for their companies for more than two years and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rough these interviews, this study demonstrates and analyzes their experience. As a result, there are four main components and twelve subordinate components, that is,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Life as a stranger', and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The pastors' working wives who engage not only in the church but in the working place are physically and emotionally burdened as they are preoccupied with guilt and feeling lonely without anyone to share their situations. However, they recognize that they are useful in faith, and thank to God due to filling their lives with meaningful things. Lastly, this study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pastors' working wives' experience and proposes a need to see it in a new viewpoint.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se findings will provid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astors' working wive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 suitable supportive system for them.

Key Words : pastors' wives, work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chanmom@nate.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gin05@naver.com
2017년 12월 28일 접수, 2018년 03월 09일 최종수정, 03월 13일 게재확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30여 년간 취업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양상을 보이면서(김기현, 2001) 2017년 3월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6년 까지 여성 취업률이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점차적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의 기대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이숙정, 2011) 사회적으로 여성 직장인 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양립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역할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들은 직장생활 유, 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일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기혼 여성 직장인의 역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손영미, 2015). 그리고 30-50대의 한국 기혼여성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한 가영희(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미혼자보다 직장인과 주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 사모로써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 2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분석한 김나미(2016)의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회자 사모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문헌들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사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오스왈드(Roy M. Oswald)가 지은 『목회자의 자아 돌봄』이라는 책에 따르면 목회자 사모들 중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 보다 젊은 사모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했다. 반면 정신적 피로도에 있어서는 젊은 사모들 보다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통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 초기부터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장기간 사역을 하고나면 정신적 피로도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환, 2005 재인용) 이로써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사역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자 애쓰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의 심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감은 더할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자아성취를 하고 또 일면으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반 기혼 직장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사모라는 입장에서 갖는 특수함과 교인들이 사모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 이미지로 인해 더욱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목회자 사모들과는 또 다른 현실적 난관들에 직면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자 사모는 자신의 성향이나 요구 사항 보다는 교우들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부여되는 정체성’(안석모, 2005)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자아실현을 위한 이유에서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는 일반인 직장인 기혼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의 평가적 시선과 크고 작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동안 목회자 사모와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로는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6), 자기소의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에 대한 연구(전정희·한재희, 2012), 목회자 사모가 목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김상태, 1992),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 다룬 연구(김신섭·정구철 2015), 국외 연구로 목회자 배우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Hack, 1993), 목회자 아내의 스트레스와 정신분석과 관련된 연구(Roberts, 2004)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회자 사모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인간관계, 정체성, 역할, 정서적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었고 특별히 이

들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들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회운영, 그들의 가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 이기에(오원택, 2004) 이들의 고통을 조정해 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이해받고 신체, 정신, 사회, 영적으로 더욱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 고통예방을 위한 방안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특성의 공통점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상황적, 시간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구조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시도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경험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고 분석 및 기술하여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들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II. 문헌연구

1. 목회자 사모

“목회자 사모는 일반 신앙인과 다르다.”, “사모는 사모다워야 한다.”, “목회자 사모의 제대로 된 역할이 교회를 살린다.” 등은 목회자 사모를 향한 외부의 일반적인 목소리이다(홍용인, 2010). 목회자 사모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특성과 더불어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이들의 정체성과 상황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김신섭 외, 2015: 243).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사모들은 “내가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인지, 교회의 사모인지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전정희 외, 2012). 윤상현의 연구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모에 대해 사명감을 이는 여성,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 겸손한 여성, 현숙한 여성, 대화하는 여성, 감사하는 여성을 드러내는 순종형 사모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윤상현, 1989: 45-55). 비록 최근 들어 목회자 사모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에 의한 평가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던 사고방식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개별성을 존중하려는 방향으로의 부분적인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역할 요구 및 목회자 사모라면 이래야 한다고 하는 정형화된 인식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형성 되었다 기 보다는 사회통념적인 인식에 흐름을 탄 것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최미선, 2007: 13-15).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시대와 사고의 변화 양상과는 별개로 말없이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과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고(김나미, 2015: 254-255), 또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로는 목회자 사모는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

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계선을 긋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까지 논의 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사모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목회자 사모들도 여느 다른 여성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의 나뉠의 자기실현에 대한 소망과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변 환경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여되어 가는 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빛바래 가는 것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돈과 자아실현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모들의 정체성 혼란들이 교회 내에서 기대하는 사모 상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어 살아가도록 가면을 쓰게 하는 상황을 이끌어간다. 이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무게를 가중 시키고 자존감을 낮추게 만든다(최미선, 2007).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 주변 상황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 안에 고정된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모의 모습과 교회 내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최근 30-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정 1,185만 8천 중 529만 6천 가구가 맞벌이 가정으로 유배우 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통계청, 2017) 이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보편화와 변화되는 경제구조 및 가족구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현실화와 관련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혜숙, 2007: 2,4,9,13 ; 유성경 외, 2012: 2-3).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환경에서 기혼 여성들이 체감하는 역할비중은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의 잔존과 관련한 역할 비중의 과중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진숙·최원석, 2011:170-171).

전업주부와 비교하였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가정 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때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근식·윤옥화, 2009: 169).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후 며느리, 어머니, 아내와 같은 다중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할긴장 및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여가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로부터의 단절감 등을 경험 한다고 한다(남순동, 2009: 8-11). 더군다나 기혼인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 있어 송다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인 여성의 스트레스가 증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기혼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 책임으로 인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남성에 비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과 최원석(2011)의 연구에서는 후기산업사회 이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의 부여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다중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 내의 역할 수행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역할 갈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하며 감내해 갈 것이나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반인 기혼여성취업자가 경험하는 다중역할에서 사모로서의 역할과, 교회 내에서 바라는 사모상의 기대치가 중첩되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 부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기혼취업 여성들은 슈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Shaevitz(1984)에 의해 처음 정의된 개념으로 기혼 유자녀 취업 여성들이 여러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저하와 대인관계의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Shaevitz, 1984; 한경훈 외 2015: 26). 목회자 사모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교회 내의 사역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요구 되는 일들은 다 감당해 내기가 힘이 든다(김나미, 2015: 254-255).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모로서의 역

할에 대한 평가 앞에 제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모가 직장 생활 하느라 사모 일을 제대로 못해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이에 더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내려는 과정이 일반 직장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더욱 심각한 피로와 수퍼우먼 신드롬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목회자 부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모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기개발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회자 사모들이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상황적 제약들이 이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주봉채, 2005: 37-39).

이처럼 일반인 취업여성이나 전업주부로서만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더 많은 다중 역할 감당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밝혀내고자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부산, 경남지역내의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로서 지낸 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하였고 둘째 기준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경험이 2년 이상인 자를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또한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 및 진행과정,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 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총 7명이었다. 표본 수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특성상 유사점을 가진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시행할 때는 6~8명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Kuzel, 1992: 31-44).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8.3세였다. 결혼 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했으며 직장생활 경력도 4년부터 19년까지로 다양했다. 남편 목회자의 목회구분은 7명의 참여자 중 한 사람만 담임 목사였고 나머지 6명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ge(yr)	Type of occupation	Career duration of occupation(yr)	Marriage period	Pastoral division (husband)
Participant 1	39	a public service employee	13	11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2	38	employee	4	6	pastor in charge
Participant 3	41	nurse	17	1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4	31	chemist	5	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5	35	nurse	5	6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6	44	elementary school teacher	19	15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7	44	kindergarten teacher	18	13	assistant pastor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약 2개월이었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해 나가면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 하였고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2회~3회까지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120분이었다. 주요 질문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로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경우 진술내용에 따라 준비한 부가적 개방질문을 이어나갔다. 부가적 질문 내용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보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을 다님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 삶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을 다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면담 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능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답이 유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어조, 표정, 손짓, 웃음이나 눈물) 모두를 누락 시키지 않도록 메모와 관찰을 하며 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을 하였고 메모는 면담도중에는 참여자의 표현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면서 참여자와 면담을 마친 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까지 면담을 진행하였고,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부족하다 판단된 내용은 면담을 재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하여 질문을 하였다.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중지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가정과 기준의 이해에 관련된 검토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 모두를 녹음하였고 참여자가 진술한 그대로의 언어로 녹음된 내용은 필사한 후 원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확인 하였다. 면담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의 진술에서 그것이 가지는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진술의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진술된 내용에서 목회자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의미들을 추출한 후 이를 참여자의 경험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중심의미를 연구자 관점의 언어로 변화시켜 기술함으로써 주제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해서 분석하고 수정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료의 차원과 속성을 고려하여 상·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출된 중심의미들을 일관성 있는 관계들로 통합시켜 목회자 사모의 관점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상황적 구조를 구성 하고 이것을 통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일반적 구조기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하위구성요소로는 12개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에 의해 제시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회자 사모로서의 입장에서 2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목회자 사모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참여자 중 2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는 member check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을 얻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목회자 사모를 참여자로 선정하고 참여자 7명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17회였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여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 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여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자 면담에서부터 필사까지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 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언어로 상·하위 구성요소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1명과 질적 연구에 대한 다

양한 교육을 받은 박사과정생의 자문을 받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 학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고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서 16년 이상의 임상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KU IRB 2017-0051-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방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자료 누락 방지를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 참여자의 신분 보호, 익명성 보장, 원치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가능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확인 후 스스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음성 파일을 포함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 후 연구자만 알 수 있는 패스워드를 걸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3년 동안 보관하고 연구자가 직접 모든 자료의 보안유지에 관해 관리 할 것이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석을 마친 자료들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할 것임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편안해하는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구조는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 요소가 도출 되었다. 4개의 구성요소는 ‘사모라는 이름의 굴레’, ‘시선 속에 갇힌 인생’, ‘이방인으로 살아감’,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로 확인 되었다.

Table 2 Components of Work experience of pastor's wives

category	sub-category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It is unfair but can not rebel myself
	A life that is always burnout
	Wearing a mask in my life
	A subtle restriction
	Feeling so sorry that they can not take care as a mother's role
	Live a life with debt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Get discouraged by other's eyes
	The path of a sad double standard
Life as a stranger	Shadow life of a pastors' wife
	There is no one to open in their hearts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Feel as an useful person
	Feeling satisfaction and alive

1.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 기술

(1) 굴레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면담에 참여했던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로서 직장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특히나 남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 사모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교회에 있는 시간동안에는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 길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자신이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직장 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표하지 않고 목

회자 사모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 때때로 서러움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 사모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녀 아무리 피곤해도 체력을 쥐어짜 가며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다 표현했다.

또한 사모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물질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 아파하는 사모들도 있었다.

① 억울해도 반항하지 못하는 자신

참여자 1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어서, 더군다나 사모라서 다른 직장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자신의 일이 아닌 업무가 주어져도 반항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직장에서 제가 사모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요. 화도 못 내고, 억울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게 힘들어요. 다른 동료가 저한테 함부로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니 계속 함부로 대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보직을 많이 맡기세요. 못한다고 징징거리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이 사모라고 하던데 희생도 안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 라고 평가하거든요. 내가 사모라는 걸 이용해요. 남들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교인이~', '사모가~'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평신도 보다 더 참아야 해요. (참여자 1) 25세부터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제가 사모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되면서부터 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늘 참고 좀 부당하다 싶거나 저에게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그걸 일일이 따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그냥 수년 동안 묵묵히 참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자 5) 직장에서는 내가 목회자 아내라는 걸 다들 아니깐 행동이나 말투에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늘 신중하게 판단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목회자 사모니까... 목회자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 주지 않으려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야말로 묵묵히... (참여자 6).

② 늘 소진되는 고단한 생활

참여자 1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사모로서 더 모범을 보이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과중한 업무에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 할 수 밖에 없다 하였다. 교

회에서는 예배드리러 가는 날, 특히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다른 사모님들처럼 평일에 있는 교회 행사나 특별 집회 같은 것에 참여해서 섬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미안함을 씻으려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때때로 소진됨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직장에 다녀서 평일에 있는 예배나 기도회, 모임 같은 데는 잘 못나가지만 직장인 사모라 해서 역할을 적게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한테 전화심방도 해야 하고 주중에는 기도문도 짜고 QT하고 단톡방에 그날 그날의 QT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이런 걸 잘 해내고 싶은데.. 너무 버겁다고 느낄 때가 간간히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버거운데 아니니깐 내 스스로도 아쉽고.(참여자 1)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동료지 친구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Refresh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에 나가 있지 않는 시간에는 교회 일에 매진해야 하고.. 내 시간이 없어요. 진이 빠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꼭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직장일 하느라 온전히 매진하지 못했던 사모로서의 역할에 퇴근이후의 시간을 써야 하니까...(참여자 2)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아주 큰 대형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고 사례비도 많은데.. 목회자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되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4대 보험도 안 들어 주고 사례비도 제 월급의 1/2정도 밖에 안돼요.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제가 벌 수 밖에 없죠(참여자 3).

③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

참여자들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순종적이고 건전한 사모상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굴로 살아간다 했다.

저희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너무 베일이 많아서 싫었어요. 어딜 가도 어딜 가는지 말을 안하고 출타한다고... 이런걸 보면서 전 절대 사모 안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모가 됐네요. 그냥 목사님과 결혼하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사모가 되는 거니까..이렇게 사모가 되어서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네~네~'하며 생글거리고 다녀요. 나 자신은 뒤로 감춘 채...(참여자 5)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이 사모가 저리 피곤해 보여서 어쩌냐, 교회일에 써야할 힘을 일 다닌다고 다 써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참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얼굴 화장이나 표정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고단해 보이지 않으려고...(참여자 7)

④ 은근한 제약

면담에 참여했던 사모들은 교회로부터 오로지 사모로서 지내면서 남편 목사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 받는다 했다. 이러한 요구가 귀한 일 인줄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직장이 허락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진데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신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차 이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해 나갈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직장 다니는 걸 직접 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직장을 관두고 사모역할에 매진할 것을 원하죠. 그걸 대고 ‘사모님 직장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속상해요 진짜...(참여자 3) 기본적으로 목회자 사모는 교회에서 원하면 언제든 직장을 그만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번 교회에서 제가 복직할 때도 사모님 복직하시면 목사님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되면 사모는 일을 그만뒀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부목사님 사모도 일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제 친구는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 뒀어요(참여자 5). 그래서 내가 내 직업 선택이 내 의지보다 남편의 교회의 분위기, 성도의 시선에 휘둘린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나도 사명이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깐 내 마음에 부딪힘이 컸거든요. 되게...암튼 교회에서 사모가 일하는 건 그리 반기는 일은 아니예요(참여자 6).

⑤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의 자리

평소에는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선 사모로서 거의 달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외 일수도 있으나 목사님의 사례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월급이 아닌 사례비이기에 경제 사정이 늘 어려워 더 좋은 필요와 기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 될까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어떤 참여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대출로 대출을 막아낸다고 하며 물질적 고단함을 표현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하니 하나님이 저의 직장생활을 통해 채워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너무 자기 합리화 인가요? 때때로 저도 내가 내 맘 편 하려고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자리다,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전하고 물질도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고민하기도 해요. 목사님 사레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필요한 돈 조차 채워 줄 수가 없어요. 한번은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중 여러 명이 유치원 마칠 때쯤 발레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간데요. 자기도 발레 배우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근데 전 그걸 보낼 형편이 안돼요. 너무 속상하고..흑흑...(눈물을 흘리며) 애한테는 미안하고. 큰애도 학원 보낼 돈이 안돼서 늘 힘든 상황이에요. 때때로 큰애 학원비가 며칠이라도 늦을 때면 애한테 불이 익이나 안 좋은 시선이 가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가끔 너무 돈이 안돌아 가면 한 두달 정도 학원을 쉬게 할 때도 있어요. 애한테는 미안하고 내 스스로는 서글프고...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카드 비가 나가는 시기가 되면 그걸 못 채워 넣을까 전전긍궁입니다(참여자 6). 애들이 병이 나도 빠른 조취를 취하기 힘들니까 애들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번은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바빠서 집에 있는 감기 시럽을 먹이고, 주일 아침에 애가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여서 오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기 전에 주말에도 하는 병원을 데려가 볼까 하다가 주일만 이라도 평소에 직장 때문에 더 하지 못했던 사모의 역할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주일 내내 애를 방치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저녁 예배 까지 마치고 나니 애가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죠.. 폐렴이었어요.. 너무 미안 했어요 애한테.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난 내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질까봐, 또 직장안다니는 사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애 병을 키웠어요(참여자 5).

⑥ 늘 빛 진자로 살아감.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할 때 한계를 긋고 있다는 생각을 비롯해 다른 사모들처럼 충분히 목사님과 교회 일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과 사모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늘 빛 진자 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평일에 있는 기도모임, 예배, 특히 새벽기도에 잘 참여하지 못 하는게 신경 많이 쓰이나 봐요. 교인들 눈치도 보이고... Main은 목회자 사모라는 것이다. 새벽기도에 좀 더 충실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데 다 해내기가 벅차요.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 눈치가 보이겠어요(참여자 2). 교회에서도 내가 일하는 사모라고 되도록 예배가 아닌 그냥 그룹 모임 같은 곳은 권하지 않더라고요. 이래 저래 배려받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빛진 것 같이 무거워요. 그래도 내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봉사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 안하는 다른 사모들한테 미안하고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제 내면속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고 우리 남편이 타 지역으로 목회 자리를 옮기려 해도 지금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는 게 어렵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남편의 사역지를 한계 짓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참여자 4).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니 성실히 임하자, 죄책감 느끼지 말자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모의 본분을 좀 더 잘 감

당하기 위해 내 일을 버려야 하나 하면서 양가감정을 느껴요.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이 내 몫까지 일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힘든 문제 인 것 같아요(참여자 4).

(2) 시선 속에 갇힌 삶

참여자들은 본인을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모들처럼 목회자 사모로서만 보여 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사모인 직장인, 교회에서는 직장인 사모로 바라봐 지면서 사모로서 요구되어 지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모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들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 스스로도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① 수많은 시선으로 자꾸만 움츠려 드는 자신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비해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평가의 자리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마치 교인들이 시어머니고 자신이 며느리가 된 듯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목회자 사모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교회 일에 불성실하다고 여기고 마땅치 않다고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직장일도 주의 일도 충성을 다하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부터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어요. 때때로는 정말이지 탈출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에서...(참여자2) 목회자 사모가 무슨 돈을 벌러 나가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마치 나를 세속에 물든 사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조차도 정말 그런가 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목회자나 사모는 참으로 은혜받기 힘든 자리 같아요. 주일에도 늘 봉사해야 하고 교인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예배에 집중이 안돼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다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힘들어요. 교회에는 친 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던데 사모역할로 잘 할라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저 사람이 목사 사모라던데 뭐가 다른지 관찰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마음가는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되요 제 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소한 지적도 받고 싶지 않은데 간간히 사소한 지적이 크게 다가오죠(참여자 3).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교회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냐는 식의 말을 했어요. 진짜 속상하더라구요. 전 저 사모가 피곤한데도 저리 열심히 애쓴다 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참여자 5).

② 서러운 이중 잣대의 길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에서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교회에서는 직장을 다니다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말하며 어느 입장이 되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봐 지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근데 나는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쁜 것, 시간이 없는 것 보다 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바쁜 사모니까 더 느그럽게 봐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모라고 해서 더 피곤하게 보여 지는 것, 예배시간에 좀 더 일찍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안 될 일이지요. 사모가 직장 다닌다고 제역할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은 비롯한 예배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거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라면 “저 사모 어디 아픈가? 무슨 일 있나?” 하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모를 성도들은 사모가 직장 생활하느라 사모역할을 등한시 한다고 판단하거든요(참여자 1). 내가 처한 곳에서 성실이 살아내고 내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는데 사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목회자 사모라는 걸 이용해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든지, 조금만 실수가 있거나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라치면 나라는 개인이 욕먹을게 아니라 목회자 사모가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게 되니 제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걸 모두가 아는데, 평판이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어 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자 사모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대적 헌신, 완벽함 등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져서 평가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속상하고,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군다나 목회자 사모라고 하면 기대치 내지는 기준치가 높아지고,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든지 목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직장 생활 내에서 제가 목회자 사모라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최고 높이에요. 지나치게, 크리스찬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높는데 거기에다가 사모라는 입장까지 얹어버리면 이게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hyper죠(참여자 6).

(3) 이방인으로 머무는 삶

참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이 늘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 때때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교회내의 다른 사모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모임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걷도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어도 재충전 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한테 미안해서 본인 마음 나눌 곳이 없고 성도들에게는 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직장을 다니던 안다니던 모든 사모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여기도 저기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면

서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모가 나눌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말 하였다.

① 그림자 같은 사모의 인생

참여자들은 남편 목사님이 가는 데로 따라간다 하면서 이것은 사모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만은 아니나 본인의 직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 서운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수용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목사님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인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오로지 목사님을 내조 해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의 직장 생활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안돼요. 사모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고 사모들은 철저하게 묻혀 있어야 해서... 물론, 사모들이 많은 사역에 나서서 일을 하면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사모들은 저의 경우와 유사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익명으로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모들은 사모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교회 안의 어떤 리더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모로 가게 되면, 특히나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직장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되면 더 주눅이 들어서 사모로 가면 게다가 대형교회 일수록 거의 그림자로 묻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 가는 게... 목사님 소속이고 목사님한테 붙은 1+1이에요.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가 있기에 평소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이 하 기 힘들어하는 일 해줘 가며 사정을 봐주죠. 사모는 그림자 같은 존재고, 사모의 사생활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되고, 직장생활 한 다해서 옷차림이 호화 스러워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별거 아닌데도 남에게 도움 주게 되면 그것조차도 철저히 비밀로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참여자 7)

② 속마음 말 할 곳이 없음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라는 걸 알기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로서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모라는 자책감으로 인한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을 못 한다고 하며 여기에도 저기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음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힘들어도 사모가 되가지고 직장 다니느라 힘 다 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못내는 것 아닌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속마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내려고 전전 궁궁 해요. 원래 사모라는 존재가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들로 지내

지만 저는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이니 웬지 더 주눅 들고 해서 내 의사와 다르게 일이 돌아간다거나 판단을 받아도 더 입 꼭 다물고 제 마음 다스리며 무명인처럼 있어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참여자 3). 또 제가 직장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면 어쩌나 라는 부담감과 동시에 제가 직장 다닌다고 교회 일을 마음 편히 맡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듯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 더 목소리도 못 내고.... 가끔 제일 친한 목회자 사모인 친구랑 통화 하면서 서로 하소연해요. 그리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4).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화낼 수도 없고..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서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든지 목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직장동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살죠. 말 못하고 사는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요 (참여자 6). 전 사모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짜 솔직한 내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에서도 자유 함이 없고 뭔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성도들 하고는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는 관계라고나 할까? 제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들어만 주는 입장이지요. 친정엄마한테도 직장일, 사모일 다하느라 힘들다 소리 별로 못해요. 우리 엄마는 평신도니까...평신도에게 사모가 징징되는 걸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참여자 7)

(3)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참여자들은 사모로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에 믿고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통하여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함에 감사하고 비록 직장 일에, 사모 일에 고단하고 바쁘지만 이 또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① 자신이 쓰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어도 직장에 나와서 일 할 때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숨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직장에서 사모인 자신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목회자 사모라고 하더니 그래도 좀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 하신다 느끼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장이 전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좋아요. 전도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업무에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이라더니 다르긴 다르네..하는 소리도 가끔 들어요. 제 발전도 있고.. 이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직장동료 중에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걸 보았어요. 아예 안 믿다가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참여자 1). 그래도 감사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하는 지친 영혼으로 보이고... 목사님 사모님인 제가 그 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깐요(참여자 2).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사모라는 걸아니까 제가 양보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사모라더니 참 성실하다, 내같으면 못 참고 한소리 했을 텐데 잘 참고 해낸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다라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생각 들고...(참여자 4) 그리고 제가 제 주변 친한 동료 6명한테 성경책을 한권씩 주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해서 드린다 하니 어쩔 이걸 받는 게 불편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하고 드리고 왔어요.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낌이 있었겠지만 다들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한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먼 훗날이라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기대가 되고..제가 뿌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근데 이건 일반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사모라면 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참여자 6).

② 채우심과 살아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사모라는 자리가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어떠한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늘 노력하며 점검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이 발전하는 거름으로 역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활력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심과 이주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모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매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내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명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전문직 직장여성으로 살아가니 자부심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내가 벌어서 쓰니 좋죠. 힘들지만 일할 곳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요(참여자 2). 한번 씩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을 비춰 봐요. 기도하고... 여쭙보고...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닌가...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길 속에서 내적 갈등을 떠안고 살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통 스러워 하고 고

민하는 것 보다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시니 까요(참여자 3).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혜, 채워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직장을 통해서 채워주심이 있다는 생각과 제가 돈을 버니까 다른 사모님들이 좀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빌려 드릴 수 있는 거, 사모님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에 손 내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같은 사모로서 사모님들의 형편을 더 이해하니까 다른 교회 어려운 사모님들한테 후원을 하고...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보람일까... 생각해 본적도 있어요. 제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어떤 존재로 위치 하길 바래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뭐랄까...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 하셨을 텐데... 목회자 사모로서 사는 인생이 귀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7).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일반적 구조 기술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4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사모가 귀한 자리임은 알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면 때때로 이것을 굴레로 느끼게 하는 주변상황이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이기에 그렇지 않은 직장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맡게 되어도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될까봐 불만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헌신을 요구 받고 있어 힘들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사모이기에 더 유능해 지려 노력하면서 교회에서는 직장을 다녀도 사모 역할을 순종적이고 성실하게 해 내려 하는 동시에 직장출근 때문에 평일에 교회행사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심리로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에 더 애쓰다 보니 때때로 소진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순종적인 사모 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굴로 지내면서 자신이 직장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남편 목사님의 사역을 더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모가 사역에 전념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고 평가하는 교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직장일과 사모역할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자녀들에게 엄마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고 느끼는데서 오는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직장생활이 남편 목사님의 사역에 한계를 짓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대한 빛진 자된 마음으로 살아감을 표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모로서만 살지 않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사모라

는 이름이,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전념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워져 바라봐 지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위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소속감이 없이 겉돌게 되고 힘들어도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 속에서도 직장을 다니게 된 것과 사모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고백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에 감사하고 있었다. 사모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 그 곳에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는 감사의 경험들을 표현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로써 직장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겪어내고 있는 생생한 삶의 경험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 연구로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은 12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범주로 드러났고 도출된 범주에 따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첫 번째 경험은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어서 억울함, 소진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삶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제약, 자녀에게는 미안한 엄마. 빛 진자 된 감정 들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목회자 사모들은 기혼직장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목회자 사모된 입장에서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을 중복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진숙·최원석(2011)의 연구에서 기혼직장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과중한 역할과 시간 부족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혼 유자녀 직장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한경훈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상당수의 직장여성들이 수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e)이라는 스트레스 증

후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일을 완벽하게 양립하려는 심리 상태가 소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전에 의해 온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 사모의 경우, 상기 기술된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해 교회에서의 사모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 기혼 직장여성이 겪고 있는 다중 역할로 인한 심리적, 시간적 압박감을 가지는 동시에 목회자 사모라는 입장이 가중되어 더욱 부담감을 갖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겨진다. 또한 목회자 사모는 더 높은 평가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바라봐 지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 아내의 자아 정체감과 주관적 웰빙을 다룬 김신섭(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 그것은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상황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행동이 목회자 사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과 두려움에 팽배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에서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워진 채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강요받고 있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사모와 기독교인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염려 되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묵묵히 힘든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의 역할은 일반 직장인 기혼 여성과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운 현실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 가고 있기에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및 소진상태에 봉착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비교해 볼 때 기혼 직장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며 남편과 자녀에게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김근식·원옥화, 2009: 10)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른 일반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비교하여 목회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사역의 장소에서 목회자 자신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 등, 온 가족의 헌신을 기대하는 교인들의 바람이 있다고 했다(홍용인, 2010: 35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 하느라 어느 위치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애써 감당하며 교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시간이 등한시 되는 것과 물질적으로 충분치 못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나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기혼 여성들은 자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교육에 제대로 신경 써 주지 못함에 죄책감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의 직업보다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 사모의 자리라 하였기에(장은진, 2008: 188) 본 연구의 참여자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과 목회 안에서 양측면의 일들을 감당하며 탈진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라는 이미지의 굴레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 크나 큰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 사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격체이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교회 내에서 먼저 사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사모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함께 나누어 감당해 가고자 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 된다.

둘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두 번째 경험은 직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시선과 잣대로 평가 되어 지며 스스로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었다. 오미희(2012: 1-4)의 연구와 반신환(2003: 81)의 연구에서 보면 목회자 사모들은 교인들의 틀에 맞춰진 시선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증폭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목회 사역에 불성실한 사모로 평가 받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하여 월급(사레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목회자나 그 사모가 주어진 경제 형편에 맞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오미희, 2012). 이로 인하여 사모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반신환, 2003)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인들이 사모에게 기대하는 틀에는 자신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의 입장 및 현실과 관련하여 주봉채(2005)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은 바울의 가르침 즉,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을 오용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목회자 사모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은 생활비로 자녀의 교육비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한 목회

자 사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목회자의 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사모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손민정, 2013).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사모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목회자 가정의 불화를 가져 오고 목회자의 교회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오미희, 2012). 본 연구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라는 자리를 등한시 여겨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속에 물든 사모, 목회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모로 보여 지면서 이러한 시선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반복적으로 의식되는 교인들의 부정적 시선과 함께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에 가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민정, 2013). 이에 대해서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사모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을 했다. 어떤 사모는 자신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실 청사진이 그려진다고도 했는데 이는 최근 기독교 각계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여 진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바울도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는데(행 18:1-4)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떠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각 처소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되고 목회자 사모의 입장에서 직장에서건 교회 내에서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그들은 직장에서도 자신이 목회자 사모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욱(2016)의 연구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침체기에 있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성장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정보 지식산업에 기초한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일터영성’과 ‘일터사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해 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임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주의 일을 등한시 하고 세속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이 사모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들이 일터에서 주도적인 리더로 잘 성장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세 번째 경험은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힘든 감정을 나눌 곳도 없고 뚜렷한 소속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 된 듯한 외로움이었다. 목회자 사모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박인숙,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교회와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행동거지를 점검하고 역할기대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서적 고립감은 목회자 사모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로 실제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2: 19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 보다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고 재충전을 할 시간이 없이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다른 사모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사모들에게조차 본인의 힘든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에서도 직장인 사모가 드러낼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으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고립감과 지지망 부족의 외로운 삶의 모습들을 온몸으로 감싸 앓은 채 살아가는 것이 참여자들의 인생임을 알 수 있었다. 목회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는 이를 묵묵히 돕기 만하면 된다고 사모에게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 사모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 내에서 요구하는 모습이기에 사모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느라 성도들이 요구하는 사모로만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면서 더욱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없기에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이러한 것에서 한계가 있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장은진, 2008: 193).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부터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시작해 나감으로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넷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네 번째 경험은 직장생활과 교회 내에서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을 경험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이끄심을 생각할 때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었다. 김보람(2017: 8)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고, 배우자(목회자)의 사랑만으로는 사모라는 입장에서 해결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기에 목회자 사모들은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감사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상황에 봉착 할 지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유익한 방향으로의 상황 재해석 능력이 탁월하다 하였다(Tedeschi, Calhoun,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힘든 직장생활과 직장을 다니는 사모에 대한 교회내의 부정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 곳에서 성실함과 선한 태도를 보여 갈 때 직장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 하심과 자신을 들어 쓰심을 깨달아 알아 가면서 고된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직장을 통해 필요를 채움 받고 받은 은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모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어 보람도 느낀다고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였는데 상기에 언급된 연구 내용들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목회자 뒤에서 묵묵히 사모로서의 역할만 감당해야 한다고 여기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며 이들을 높은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의 동역자로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직장을 다니는 사모를 목회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하던 부정적 시각을 벗겨내고 이들이 겪어내고 있는 고단한 삶의 여정에 대해 관용의 태도로 바라보며 사모들을 성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야할 존재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으셨는데 필요한 곳을 비추고 뿌려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삶과 고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근거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교회차원에서 사모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인식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노력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갖는 것 대해 좀 더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전환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한계 짓는 제약과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소외감을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전인건강을 위해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 및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과 이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 사모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닌 직장에서도 올바른 교회문화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연구자와 연구자 주변인들의 교회에 소

속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서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7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수가 충분치 않고 연구자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수를 확대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등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혜숙 (2007).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Kang, H. S. (2007). *A Study on Childcare Policy for Married Working Women*.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김근식·윤옥화 (2009).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167-188.
- [Kim, K. S, Yoon, O. H. (2009). A study on the QOL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ed o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effecting factors. *Korean Autonomous Administration*, 23(2), 167-188.]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Kim, K. H. (2000). *Exploring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parenting stress of dual-earner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김나미 (2016).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673-685
- [Kim, N. M. (201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Spiritu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673-685]
- 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252-261.
- [Kim, N. M. (2015). Relation analysis on mental health and spiritual wellbeing of the pastors' wiv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252-261.]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Kim, N. H, Lee, E. J, 곽수영, Park, M. Y.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3), 188-200.]
- 김보람 (2017). **목회자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안녕감과 감사의 조절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Kim, B. L.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and apprec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or's wife's stress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aejeon, Korea.]

- 김상태 (1993). **재림교회 목회자의 바람직한 부인상과 목회 현장에서의 사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Kim, S. T. (1993). *A Study on the Desirable Minor Appreciation of Adventist Church Pastors and the Role of Private Wives in the Pastoral Field*, Master Dissertation, Samyuk University. Seoul, Korea.]
- 김신섭 · 정구철 (2015).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42-253.
- [Kim, S. S, Jung, G. C. (2015). Influence of self-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Pastor's wives :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242-253.]
- 남순동 (2009). **중년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예측모형**.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Nam, S. D. (2009). *A middle-aged female family stress and mental health forecast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도전욱 (2017). **후기산업사회 한국 도시교회의 위기 속에서의 BAM 사역의 원리와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Do, J. W. (2017).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Bam ministry in crisis of Korean urban church*,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인숙 (2009). **목회자 부인의 정신건강과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Parkm I. S. (2009).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and healing of pastor 's wife*, Master Dissertation, Hanshin University. Osan, Korea.]
- 반신환 (2003). **사모상담 · 기독교상담**.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 [Park, S. H. (2003). *Private Counseling · Christian Counseling*. Daejeon: Hannam University Press.]
- 손민정 (2014). **목회자사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Son, M.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stor 's Stress on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손영미 · 박정열 (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축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3-215.
- [Son, Y. M, Park, J. Y. (2015). Influence of work-family related valu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Focused on married working woman. *Journal*

-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7), 203-215.]
- 송다영 · 장수정 ·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Song, D. Y, Jang, S. Y, Kim, E. J. (2010).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nflict of korean working people: Focusing the effect of workplace support and familial support . *Social welfare policy*, 37(3), 27-52.]
- 안석모 (2005). 사모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허와 실. *목회와 신학*, -(189), 134-135.
- [Ahn, S. M. (2005). Truth and falsity for pastor's wife's identity issues. *Pastoral Theology*, 3(2), 172-186.]
- 연명숙 (2013).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Yeon, M. S. (2013). *A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pastor's private*. Master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san, Korea.]
- 오미희 (2012).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Oh, M. H. (2012).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astors'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유성경 · 홍세희 · 박지아 · 김수정 (2012). 한국 여성의 일-가족 갈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1-29.
- [Yoo, S. K, Hong, S. H, Park, J. A, Kim, S. J. (2012). A validation study of the work-family conflict scale with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woman*, 17(1), 1-29.]
- 윤상현 (1989). **목회자 아내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Yoon, S. H. (1989). *A Study on the Qualities and Role of Pastoral Wives*.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Goyang, Korea.]
- 이숙정 (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학연구**, 21(2), 81-112.
- [Lee, S. J.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Research in Women's Studies*, 21(2), 81-112.]
- 이진숙 ·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43(4), 5-30.
- [Lee, J. S, Choi, W. S.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 -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이진영 · 전요섭 (2012). 일반 : 목회자 아내의 정서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자기노출과 지지집단 형성. *한국개혁신학*, 34(-), 193-231.
- [Lee, J. Y, Jeon, Y. S. (2012). Self-exposure and supportive group formation to overcome emotional isolation of pastor's wife. *Korean reform theology*, 34(-), 193-231.]
- 장미선 · 이유진 · 조현정 (2011). 목회자사모의 DACUM 직무분석과 교회비서와의 비교연구. *비서 · 사무경영연구*, 20(2), 79-103.
- [Jang, M. S, Lee, Y. J, Cho, H. J. (2011). DACUM job analysis on pastors' wives and a comparison with church secretaries. *Secretary · Office Management Research*, 20(2), 79-103.]
- 장은진 (2008).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187-210.
- [Jang, E. J. (2008).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the pastors' wives and their demand for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6(-), 187-210.]
- 전정희 · 한재희 (2012).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사회적 현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159-186.
- [Jeon, J. H, Han, J. H. (2012). A study on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Pastor's wives experiencing self-alie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1), 159-186.]
- 주봉채 (2005). **목회자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Joo, B. C. (2005). *A study on the solution of the stress of pastor couple*.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Goyang, Korea.]
- 최미선 (2007). **인지요법을 활용한 목회자 사모의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Choi, M. S. (2007). *Pastor's private depression treatment program using cognitive therapy*. Master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한경훈 · 박소정 · 김세현 (2015). 기혼유자녀 직장여성의 수퍼우먼 신드롬 유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양상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25-43.

- [Han, K. H, Park, S. J, Kim, S. H. (2015). Superwoman syndrome of married, working wome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earch on Society Science*, 31(2), 25-43.]
- 홍용인 (2010).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caring)의 개념으로 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347-378.
- [Hong, Y. I. (2010). A study of pastors wives' identity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carol gilligan' s car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 347-378.]
- 김종환 (2005). 사모의 자기 돌봄, *목회와 신학*. 194.
- [Kim, J. H. (2005). Self-care of Pastor's wives. *Pastoral Theology*, 194.]
- Giorgi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Kuzel, J.(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BF Crabtree and & WL Miller, Editors. *Doing qualitative research*, 1994, 31-4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 Morse, J.M., & Field, P.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London: champman & Hall.
- Pentecost. D. (1991). *A successful pastor's wife*, Seoul: Emmao.
- Roberts, P. S.&Getz, H. G. & Skaggs, G. E.(2006). Alleviating stress in clergy wives: Formative evaluation of a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 in its first implementation.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9(1), 35-58.
- Shaevitz, M. H. & Shaevitz, M. H.(1984). *The Superwoman Syndrome*. New York, NY: Warner Books.
-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TARGET ARTICLE: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Hack, A.L.(1993). *The clergyman's spouse: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the spousalro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entucky.

논문초록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조현미 (고신대학교)

최은정 (교신저자/고신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을 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의 상황적 구조로 도출되었고 도출된 4개의 구성요소는 ‘굴레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시선으로 에워싸인 삶의 여정’, ‘이방인으로 머무르는 삶’,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이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어 육체적, 정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늘 평가의 시선에 사로 잡혀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 마음 나눌 곳이 없어 외로움을 경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이 신앙 안에서 자신을 들어 쓰임과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경험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 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목회자 사모, 직장생활 경험, 질적연구

